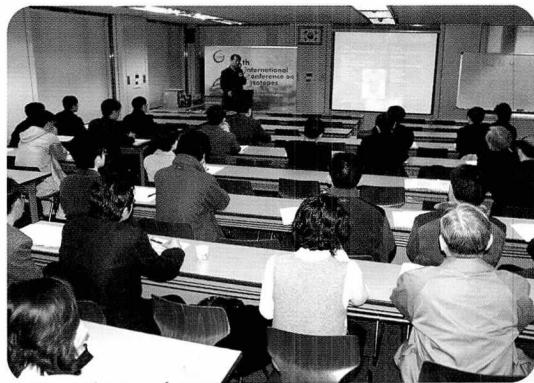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 보수교육실시



우리협회는 3월 22일(목) 협회 강의실에서 RI관련(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도 첫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총 47명(감독자면허 11명, 일반면허 29명, 특수면허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보수교육은 면허자들의 방사선관련 기술 습득, 안전의식 고취 등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하는 RI관련 면허자는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방사선방호 현황(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이재성)', '면허자의 역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재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우리협회는 보수교육 외 RI관련 면허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으로 방사선안전관리실무와 관련된 전문과정(2일 이상)을 마련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인사 동정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은 3월 26일(월) 신임 이사회를 갖고 신임 이사장으로 고창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명예회장을 호선하였다.
임기는 3년 (2010년 2월 말까지)이다.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창단 및 임기회 개최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3월 15일(목)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창단식을 가졌다.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김영식 과학기술부·원자력국장을 비롯하여 박필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상근부회장,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의 추진경과보고 및 그동안 진행해 온 활동,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5개 분

과로 구성된 위원장들로부터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방사성동위원회가 참여된 분과인 동위원회 소이용분과위원회에서는 정경일((주)삼영유니텍 대표) 위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 2006년 8월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기술수출지원팀”으로 출발하여 수출의 다각화를 모색하여 왔으며, 해외 시장조사, 정책자문, 방사선기술수출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사하여 왔으며 수출지원 아이템 발굴 등에 중점을 기울여 왔다.

이번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본격 가동되는 원자력 기술수출지원단은 앞으로 해외시장 동향파악, 관련

법규의 정보제공, 수출성공사례 발표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 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조달물자 공급시장 참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동 지원단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창립총회에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김영식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원자력기술수출 비전과 지원전략”이라는 주제로 수출현황 및 무역시장에서의 원자력기술 아이템의 특성, 원자력분야 현지 수출 경험 소개, 원자력기술수출시 유의 할 국제법과 규제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착공

월성에 이어 영광지역에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방재센터”)가 건설된다.

과학기술부는 영광지역 방사능재난 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수습과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영광 현장방재센터를 10월 완공을 목표로 3월부터 건설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26억원을 투입해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4km 떨어진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14,034m²의 부지에 연면적 1,235m²의 2층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영광 현장방재센터 부지에는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상대책실과 영광군 기상관측소도 함께 입주하기로 함에 따라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방사능재난 대응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장방재센터는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방사선 방호·방재장비 및 제염장비는 물론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AtomCARE)」과 연계한 원전운전상황 정보수집설비, 원격화상회의설비, 비상통신설비, 정보화설비 등 첨단화된 비상대응설비를 갖추게 된다.

현장방재센터는 평상시에는 방사능재난대응 준비태세를 갖추고 비상대응능력 강화, 방사능방재 및 물리적방호설비의 관리,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 등을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시에는 현장지휘 및 기능별 실무반 운영, 연합정보센터 운영,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방사능방재 및 긴급 주민보호조치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2005년 월성에 현장방재센터를 건설하여 운영 중이며, 울진과 고리 지역에도 현장방재센터를 건설하여 모든 원자력발전소 인접 지역에 현장방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온열매트 자연방사능 방출량 검사결과

과학기술부는 한국나노의료기에서 생산된 온열매트 제품 2종(제품명: 귀족, 바로돈)에 대한 방사선량

및 제품원료의 방사능 농도분석결과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수행) '07. 2. 28(수)

일 발표하였다. 검사방법은 객관성과 측정결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업체의 협조를 얻어 기 보급된 동종의 제품을 시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제품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인은 자연방사능 물질인 토륨(Th)과 우라늄(U) 원소를 함유하는 희토류 광물인 모나자이트가 혼합된 30Kg의 세라믹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품표면에서의 방사선량은 귀족의 경우 $0.19\sim 0.50\mu\text{Sv}/\text{h}$ 로 소비자가 하루 6시간씩 1년간 사용시 연간허용선량한도 1mSv 를 최대 9%초과(1.09mSv) 할 수 있으나 평균치 기준시 선량한도에 미달하며, 바로돈의 경우는 $0.12\sim 0.40\mu\text{Sv}/\text{h}$ 로 동일조건으로 사용시 연간선량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세라믹시료 분석결과 방사능 최대 농도는 귀족의 경우 Th: 6.30Bq/g , U: 0.83Bq/g 이고, 다른 온열매트의 경우 Th: 5.59Bq/g , U: 0.61Bq/g 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위 온열매트에 함유된 방사능물질의 양은 귀족의 경우 Th: 41.48g U: 1.98g 이고, 다른 온열매트의 경우 Th: 34.07g , U: 1.48g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희토류광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제품의 원료가 핵분열 물질인 Th과 U를 함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자력법의 핵원료물질로 분류하더라도 단위매트에 사용된 재료의 방사능 농도와 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과학기술부는 상기제품 중 귀족은 소비자가 하루 6시간씩 사용할 경우 허용기준치를 최대 9%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품에 의한 방사선 과다노출여부는 사용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품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사 성분재료를 사용하는 타제품에 대해서도 필요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을 가진 희토류광물질의 유통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적절한 규제기준 등 법

· 제도적 관련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방사능 방출 원인물질인 자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는 사용량에 따라 원자력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참고로, 동 제품의 방사선 과다방출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 언론에서 방송 및 기사화 된 바 있으며 동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도 동일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제11차 피폭방사선량평가 워크샵 개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은 3월 29일(목)~3월 30일(금)에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과학기술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보건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방사선서비스(주) 및 한일원자력(주) 등 내부피폭선량평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피폭방사선량평가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피폭방사선량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07년도 판독업무자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일정조정 ▲신형 개인선량계 도입에 따른 외부피폭 선량평가 기술력 제고 ▲비원전 분야 내부피폭선량 평가 현황 및 안전규제 방향 ▲방사선작업종사자 생물학적 선량평가 및 노동부 안전관리 규정 등의 안건들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센터장 전승엽)는 이날 ‘내부피폭선량평가 안전규제 및 기술현황’ 주제발표 세션에서 “핵의학과 종사자 피폭현황조사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2007-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실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제2007-1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은 4월 1일(일) 충남대학교 인문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올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에는 총

2,337명이 응시하였으며, 최종합격자는 자격유무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2007년 4월 19일(목)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새출발

- 과기부 직할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 산하기관으로 변경 -
- 5개 본부 체제 재편 등 연구성과 중심 조직체계 구축 -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창규)은 3월 28일 오전 11시 연구원 대강당에서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과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덕특구 기관장협의회 기관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깃발 전달식과 현판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안팎에 알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분야 정출연법)이 발효됨에 따라 3월 27일부터 과학기술부 직할기관에서 연구회 산하 기관으로 소속을 바꾸게 됐다. 이에 따라 1973년 제정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33년 만에 폐지되고, 기관의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관리를 받아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과기분야 정출연법의 개정에 따라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활동 지원 전문조직인 연구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거대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관장하는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되게 됐다.

연구회 이관은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1월 과기분야 정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이후 4개월 여에 걸쳐 공공기술연구회 정관 변경 및 연구원 정